

보도 일시	2022. 8. 21.(일) 12:00		
담당 부서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책임자	과장 박이상 (044-205-3171)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172)

##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해극복 · 일상회복 속도 낸다 - 지난 9일간(8.10.~ 8.18.) 전국 54개 자원봉사센터 1만 9천여 명 참여 -

### < 수해복구 자원봉사 사례 >

- # 포항에서 서울까지 제습기 싣고 달려온 자원봉사자(경남 포항, 50대 남, 자원봉사자)  
뉴스에서 수해복구 소식을 접하고, 바로 피해지역으로 달려갔어요. 3일간 인근 숙소에서 숙박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지만,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땀 흘리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았습니니다.
- #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봉사 왔어요(제주시, 60대 남, 자원봉사자)  
나이가 있어서 수해 현장은 위험하다며 가족들이 만류했어요. 그래도 수해 현장을 본 순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호텔에 묵으며 이틀간 꼬박 활동했습니다.
- # 한국여행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영국인, 남)  
아내와 함께 3개월간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수해가 일어났고, 돕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이틀간 봉사했습니다. 23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 # 지역자원봉사센터 간 자원봉사 품앗이(강릉시자원봉사센터-광주시자원봉사센터)  
강원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원정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살수차와 밥차를 지원해 총 240인분의 밥을 지어 현장의 복구인력과 이재민분들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에서 온 자원봉사자는 "산불로 인해 우리 강릉이 힘들 때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어 뿌듯합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일상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10일(수)부터 8월 18일(목)까지 9일 동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충남 등 6개의 시·도의 54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만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침수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서울) 4,499명, 11개 센터 (인천) 223명, 9개 센터 (경기) 8,222명, 23개 센터 (강원) 868명, 6개 센터 (충남) 5,181명, 3개 센터 (전북) 70명, 2개 센터

□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해 침수가구 빗물퍼내기, 토사 제거 등을 실시했다.

○ 이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장, 농경지의 복구작업과 범람한 하천의 주변 정화 활동 등 각종 수해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한편, 타 지역 복구현장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지원 활동과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의 열정 어린 수해복구 활동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산불대응 봉사활동 시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살수차 및 밥차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30여 명과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 침수피해를 접하고 포항에서 서울 관악구로 달려와 3일간 숙식을 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사례와,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왔다가 서울 동작구 지역에서 이틀간 봉사활동을 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 이와 관련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방역, 자원봉사의 휴식 시간, 쉼터 확보 등을 포함한 ‘2022년 풍수해 대응 자원봉사 운영지침 2’를 마련하고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에 공유하여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및 현장 안전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수해복구 집중 동참기간(8.13.~8.21.) 동안 복구가 시급한 현장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는 한편, 직원들이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봉사활동을 위해 수해복구 현장에 갔을 때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느꼈다”며 “전국각지에서 수해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토사 제거(경기도 광주시)



토사 제거(경기도 군포시)



침수가구 이동(경기도 양평군)



이재민 지원(서울시 동작구)



침수가구 복구(충남 부여군)



토사 제거(충남 청양군)